



강이야기
 . 4
 River & Culture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BEARS



신현배 | 시인,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압록강

중국 사신과 겨룬 압록강 뱃사공 떡보

아주 오랜 옛날, 중국 황제가 우리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국에는 뛰어난 인재가 많이 있다고 들었소. 귀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로 뽑아 압록강으로 보내 주시오. 그럼 우리 중국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로 뽑아 압록강으로 보내겠소. 두 나라 대표끼리 만나 누가 더 지혜로운지 겨루어 봅시다.

우리나라 왕은 편지를 받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에서 지혜를 겨루자고 청했는데, 우리나라 대표로 내보낼 사람이 마땅히 없어서였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하, 중국 사신과 지혜를 겨루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나라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까요. 마땅히 사람이 없다면 전국에 방을 붙여, 우리나라 대표로 나갈 사람을 찾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 의견이요. 지원자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로 뽑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곳곳에 방이 나붙었습니다. ‘중국 대표와 지혜를 겨룰 우리나라 대표를 찾는다. 중국 대표를 이기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중국 대표에게 진다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은 이 방이 나붙으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원자들이 몰

려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로 뽑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방이 나붙은 지 사흘이 지나도 지원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문이 깊기로 이름난 학자들이 적지 않건만, 선뜻 나서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중국 대신과의 대결에서 지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그즈음, 압록강 근처 마을에는 떡보라는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떡보는 압록강에서 뱃사공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떡보는 서당 근처에도 가지 않아 글자 한 자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게다가 떡을 몹시 좋아하여 떡 한 말쯤은 거뜰히 먹어치웠습니다.

어느 날, 떡보는 나라에서 중국 대표와 지혜를 겨룰 우리나라 대표를 찾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히히, 내가 우리나라 대표로 한번 나가 볼까? 중국 대표를 꺾으면 먹고 싶은 떡을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을걸. 도전해 보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떡보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고을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나리, 제가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 중국 대표와 지혜를 겨루겠습니다.’

고을 사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뱃사공이나 하는 주제에 중국 사신과 지혜 대결을 벌이겠다고? 네가 제정신이나? 제 이름자도 쓸 줄 모르는 무식한 녀석아…….’

‘사또 나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뱃사공이라고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비록 까막눈일망정 생각은 깊은 편입니다. 지혜는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긴 그렇지. 네 말이 옳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원자가 한 사람 나섰다고 조정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떡보를 아무 날 아무 시에 압록강으로 보내라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며칠 뒤에 중국 사신이 압록강 건너편에 도착한다는 기별이 와서였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대표로 뽑혔나요? 야호, 신난다!”

떡보는 연락을 받고 뿔 듯이 기뻐했습니다.

떡보는 중국 대신을 만나러 가는 날, 먼저 단골 떡집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중국 대표와 지혜를 겨루어야 하는데,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잖아요. 돈은 나중에 드릴테니 떡이나 주세요.”

떡보는 외상으로 떡 다섯 개를 사 먹었습니다. 네모진 인절미 다섯 개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압록강으로 갔습니다.

지혜 대결을 벌일 곳은 압록강 한복판이었습니다. 떡보는 자기 배를 타고 압록강 한복판으로 노를 저어 갔습니다.

중국 사신이 탄 배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중국 사신은 떡보를 보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식하게 생겼군. 이 작자가 뱃사공이라고 했지? 뱃사공이 글을 배웠을 리가 없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글공부를 했는지 알아볼까?’

중국 사신은 떡보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둥근 것을 아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떡보는 손가락 모양을 보고는 그 뜻을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저자가 내가 떡을 먹고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둥근 떡을 먹었느냐고 묻고 있네.’

떡보는 중국 사신이 손가락으로 만들어 보인 동그라미를 둥근 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에게는 네모진 인절미를 먹고 왔으며 손가락으로 네모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중국 사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식한 뱃사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내가 ‘하늘이 둥근 것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땅이 네모진 것도 안다.’고 대답하는걸. 대단하네.’

중국 사신은 떡보의 손가락 모양을 나름대로 해석하며 떡보의 지혜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볼까?’

중국 사신은 떡보 앞에 손가락 세 개를 내보였습니다. 그것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김도연

은 공자가 가르친 ‘삼강오륜’ 가운데 ‘삼강’을 아느냐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떡보는 이 손가락 모양도 나름대로 그 뜻을 해석했습니다.

‘으음, 내가 먹은 떡이 세 개냐고 묻고 있군. 다섯 개를 먹었다고 제대로 알려 줘야지.’

떡보는 중국 사신 앞에 손가락 다섯 개를 내보였습니다. 그러자 중국 사신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보통 지혜로운 뱃사공이 아니네. 삼강오륜 가운데 삼강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오륜도 안다고 대답하잖아. 허허, 저참.’

중국 사신은 떡보가 내민 손가락 다섯 개를 멋대로 해석하고는 떡보를 우러러보았습니다.

‘이제 알겠다.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니 자기네 나라 대표로 뽑혔구나.’

중국 사신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혜 대결에서 보기 좋게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 대결에서 무참하게 깨질 수야 없지. 도저히 풀지 못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야. 이것은 귀신도 풀지 못할 걸.’

중국 사신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자기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전설 속의 왕인 염제 신농씨를

아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염제의 ‘염’자는 수염 ‘염’자가 아니라 불탄다는 ‘염’자였습니다. 하지만 음이 같은 ‘염’자여서 ‘염제를 아느냐?’고 슬쩍 돌려 물어 본 것입니다.

떡보가 이런 사정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몸짓을 떡과 관련하여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떡이 맛있었는지 묻고 있군. 그렇다면 대답해 줘야지. 맛있게 배불리 잘 먹었다고 말아야.’

떡보는 중국 사신 앞에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중국 사신은 이것을 보고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중국 전설 속의 왕인 염제 신농씨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복희씨도 안다.’고 대답하는 걸. 배를 쓰다듬어 배 ‘복’자를 나타내면서……. 내가 졌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난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해.’

중국 사신은 항복을 선언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떡보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지혜 대결에서 중국 사신을 이긴 떡보는 왕에게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떡을 배불리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